

방정환 ‘귀신 동화’의 형성과 의미 연구

김경희*

1. 문제 제기
2. 이야기에 대한 관심
3. ‘귀신 동화’
 - 3.1. 귀신을 먹은 사람
 - 3.2. 양초 귀신
4. ‘귀신’의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방정환이 지닌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그가 남긴 귀신 동화의 형성과정과 당대 어린이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방정환은 1922년 7월 『사랑의 선물』이라는 번역동화집을 발간하고, 색동회 활동과 함께 『어린이』잡지에 참여하였다. 소년 운동가이면서 동화 구연가로 널리 알려졌다. 그간, 방정환에 대한 연구는 그의 업적을 정리하고 번역 작품의 원전 확인에 주력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정환이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귀신동화 3편을 구성했는지를 점검하고, 새롭게 형성된 이야기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921년 1월 처음 소개된 『귀신을 먹은 사람』은 성철이가 자신이 바뀐 놓은 생선을 귀신이라고 믿고 혼란스러워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생선을 직접 먹어 치워 귀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이야기이다. 1924년 10월 『성

* 경민대학교 강사

철의 귀신잡기-귀신 먹은 사람의 속편』에서 성철이는 전편에서 보여준 경험을 바탕으로 부잣집에 재물과 딸을 요구하면서 가짜 귀신노릇을 한, 하인 성철이를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

1925년 8월 『양초 귀신』은 일본 고지마 마사지로(小島政二郎)의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서울에 다녀온 인물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양초를 주고 양초의 사용법을 몰라 그 쓰임새를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거나 글방 선생을 찾아가 물었다. 그들은 모두 사용법을 몰랐지만 양초를 물고기(백어)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끓여 먹으라고 하였다. 후에 양초를 가져온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양초를 끓여먹은 것을 알고,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는 양초라고 알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뱃속에 불이 붙을 것을 염려하여 모두 물속에 빠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방정환은 일본의 마사지로(小島政二郎)의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의 서사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나 질문을 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과 글방 선생을 통해서 그들의 허위의식을 꼬집고, 나그네와 도깨비를 등장시켜 마을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정환식의 개작이 일어났다.

방정환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성철이와 같은 인물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글방 선생과 같은 인물을 ‘귀신 동화’에 등장시켜 당대 어린이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지식과 경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핵심어: 방정환, 귀신을 먹은 사람, 양초 귀신, 지혜, 용기

1. 문제 제기

방정환(1899.11.9-1931.7.23)이 558편의 글¹⁾을 신문과 잡지에 기고하는 등 한국어동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유일한 저서는 1922년 출판

1) 장정희, 『방정환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203쪽.

된 세계명작동화집인『사랑의 선물』이다. 방정환에 대한 연구는 동화·소년 소설·수필·동화극·평론 등 각 장르에 대한 논의가 쏟아졌다. 그 가운데 방정환의 동화연구는 번역동화²⁾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방정환이 조선동화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다른 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정환이 수용한 외국동화와 조선동화에 대한 관심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한다.

1923년 1월 1일 잡지 『개벽』에 「새로 開拓되는 『童話』에 關하여, 特히 少年 以外의 一般 큰 이에게」라는 글에서 당시 조선에서 발간된 동화집의 경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조선서 동화집이라고 발간된 것은 韓錫源 씨의 「눈꽃」과 吳天錫 씨의 「금방울」과 拙譯 「사랑의 선물」이 잇슬 뿐이다.”³⁾

한석원, 오천석, 방정환 모두 번역동화집을 발간하였고, 이것이 당대의 일반적이 추세였다. 위의 글을 통해서 조선의 이야기가 아닌 외국 동화의 출판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방정환은 조선 동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실은 그렇지 않다. 방정환이 남긴 글을 따라가 보면, 먼저 동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선의 현실에서 외국 동화를 수입하여 소개하고 조선동화에 대한 발굴을 점진적으로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정환의 조선 동화에 대한 기획은 ‘고래 동화 현상 모집(1923.1)’ 속에 드러난다. 하지만, 1917년 9월부터 시작된 방정환의 집필 활동이 1931년 8월로 끝을 맺으면서 14년간의 아동문학에 대한 열정이 막을 내리게 되었고, 조선 동화에 대한 기획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신문과 잡지에 남게 되었다.

당시 조선동화에 대한 단행본 출판은 1924년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

2) 엄희경, 「“네이션”을 상상한 번역 동화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에 대하여(1)-」, 『동화와 번역』13, 2007; 이정현, 「방정환의 번역동화 『호수의 여왕』에 대한 고찰」, 『동화와 번역』13, 2007; 장정희, 「소파방정환(小波方定煥)번역동화의 창작동화로의 이행 연구」, 『동화와 번역』21, 2011; 엄희경,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의 탄생과 번역의 상상력(2)」, 『아동청소년문학연구』11, 2012.

3) 소파, 「새로 開拓되는 『童話』에 關하여, 特히 少年 以外의 一般 큰 이에게」, 『개벽』제31호, 1923.1, 23쪽.

1926년 심의린의 『담화재료 조선동화대집』으로 시작되었다. 방정환이 보여준 동화의 세계에는 분명 조선동화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었음에도, 하나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못 했다.

번역동화집인 『사랑의 선물』에서 주목할 것은 방정환식의 개작 방식이다. 소재나 주제면에서 외국동화를 수용하였지만, 그 내용전개에 있어서는 조선의 상황, 문제, 환경 등을 바탕으로 원작과는 다른 작품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최근 장정희·박종진은 『한네레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방정환다운’ 서사로 피력되는 독자성은 방정환은 원작에 존재하지 않는 제3의 인물인 ‘한네레의 언니’를 등장시켜 조선의 꺾박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대변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두 어린 자매는 비록 원작에서와 같이 천국 세계의 ‘성녀’가 되지는 않지만, 조선 어린이의 희생과 고통을 대속하는 구원자로서 더 큰 의미의 대승적 ‘신성’을 완성하였다⁴⁾”라고 해석하였다. 이렇듯 방정환의 동화는 외국동화와 조선동화가 혼합되어 있는 경향성이 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방정환 동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귀신동화’ 3편의 형성과정을 탐색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이야기에 대한 관심

우리집에 오육인(五六人) 되는 이 어린 詩人들이 늘 나를 조른다 넋날 니애기를 해달라고……그럴 때마다 나는 질겨하며 니애기를 들너 주었다 어린애들은 늘 노인(老人)보고 졸은다 소학생(小學生)들은 (중학생(中學生)도) 선생(先生)님을 조른다 나도 전(前)에 꺾 졸났다 니애기를 들너고 십어서.

동생 잇난 형(兄)이여 어린애 기르는 부모(父母)여 어린이 가르치는 선생(先生)님이여 원(願)하노니 귀(貴)여운 어린 시인(詩人)에게 돈 주지 말고 과자(菓子) 주지 말고 겨울 잇난 더로 기회(機會)잇난 더로 신성(神聖)한 동화(童話)를 들너주시요 썩썩로 자조자조

어린 동모를 위(爲)하야 되도록 국문(國文)으로 쓸 터이니 언문 아는 애에게는

4) 장정희·박종진, 『근대 아동문학과 『한네레의 승천』 전유양상』, 『근대아동문학의 양상과 동화문학의 미래』, 동화와번역연구소, 2015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7쪽.

바로 넘히는 것도 좇치만은 되도록 부모(父母)가 넘어 말로 들너주는게 유익(有益)할 듯 생각(生覺)된다. 누님이나 어머니는 밤저녁에 바느질하면서 선생(先生)님은 교수(教授)하는 시간(時間)에 기외(其外)에 또 교중(敎中) 청년회(青年會)일로 사일(侍日) 예배(禮拜)시간(時間)외(外)에 잠간(暫間)잠간(暫間) 니애기 해주는 것도 조을듯하다)

방정환은 자신도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꽤나 졸랐고, 그가 어른이 되어 보니, 아이들은 여전히 어른을 보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현재의 아이들도 그렇다. 시대를 막론하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방정환은 어린이에게 돈, 과자 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화를 자주 들려주라고 한다. 또한, 글자를 아는 아이들이 자기가 읽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부모가 읽어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혼자만의 독서보다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교환적인 말하기 방식이 이야기를 습득하는 데 더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자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에 더 익숙해 있다. 어린이가 글자를 알게 되면 어른들은 어린이가 스스로 책을 읽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어른들이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방정환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것을 부모와 선생님에게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이듬해 1922년 7월 7일 『사랑의 선물』을 출판하여 어린이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였다. 이후, 방정환은 동화 구연 활동을 통하여 그 선물을 직접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 엄희경은 『사랑의 선물』에 대하여 “외국의 유명한 전래동화와 창작동화, 그리고 공상성이 강한 이야기와 현실성이 강한 이야기를 두루 소개한 것은 전래동화와 창작 동화의 특성을 다르게 파악했을 뿐 아니라 동화를 공상성이 강한 이야기뿐 아니라 현실성이 강한 이야기로도 이해했음을 보여 준다⁵⁾”라고 하였다. 그러나 외국동화, 조선동화, 창작동화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 특수성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이들

5) 방정환, 『동화(童話)를 쓰기 전(前)에-어린이 기르는 부형(父兄)과 교사(敎師)에게』, 『천도교회월보』 126호, 1921.2. 94쪽.

6) 엄희경, 『소과 방정환 연구』, 인학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120쪽.

의 유기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1923년 개벽사를 통해 『고래동화 현상모집』에서 조선 고래 동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1년 앞선 시점에는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선물』이 외국 번역 동화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물은 조선동화와 외국 동화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生覺하난 것을 먼저 쓰기 前에 外國의 童話를 하나 먼저 紹介하고 요 다음 回부터 내가 生覺하야 맨든 것을 쓰겠습니다 이 王子와 제비는 外國에 有名한 것 中の 하나입니다.7) (내용) 요 다음에는 다른 재미있는 것을 내겠습니다.8)

방정환은 동화를 쓰기 전에 외국 동화를 소개하고,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동화를 만들어 쓰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조선동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가장 사랑하난 어린 벗들에게

다달이 재미있난 리약이를 말씀하기로 약속을 하여놔고 두 달채나 말씀을 하지 안아서 몹시 미안합니다. 썬히 내가 아니 씨 보네고도 월보가 오면 동화(童話)가 차져지고 또 업난 것이 몹시 나의 마암로도 섭섭하엿습니다. 더구나 일전에 『왜, 계속 해서 내이지 안느냐고』 독촉하신 모르는 이의 업서를 받아보고 더욱더 미안하엿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쓰려고 쓰려고는 하엿으나 지지난달에 몹이 갖쳐 잇느라고 쓰지 못하고 지난 달에는 학교 일로 쓰지 못하고 마음 속으로 미안한 마음만 그윽하던 중 이번에 또 학교일 청년회일로 빗바서 생각할 겨를이 업시 또 쓰지 못하게 되엿습니다. 미안에 미안만 거듭치게 되엿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린 벗을 사랑하난 나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의 섭섭함을 얼마라도 덜기 위하여 이번에는 급한디로 짹짹막막한 것을 주셨쓰겠습니다.

예술(藝術) 중에도 가장 어렵다는 동화 창작(創作)을 그리 함부로 쓸 슈도 업고하야 이번에는 창작만은 쉬고 다른 것을 쓰기로 하고 다음 달 부터는 느긋이 생각하야 반듯이 조흔 세 것을 쓸 것을 다시 약속하야 둥니다.9)

7) 방정환, 『왕자와 제비』, 『천도교회월보』126호, 1921.2, 95쪽.

8) 위의 책, 103쪽.

9) 牧星, 『리약이 두 조각』, 『천도교회월보』129호, 1921.5, 103쪽.

방정환은 1921년 2월에 외국 동화 소개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동화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했지만, 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방정환은 “지지난달에 몸이 갇혀있었다”라고 했다. 방정환은 1921년 2월 16일 양근 환이 민원식을 동경에서 살해하여 학우회의 간부들과 개벽사 동경지사의 박달성 등과 함께 연행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정환은 여러 독자에게 독촉장을 받지만 새로 쓴 글을 발표하지 못 했다. 방정환은 동화 창작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에 「귀 먹은 집오리」와 「까치 옷」을 급하게 손 봐서 소개¹⁰⁾하였다.

이후에 1922년 1월에 「귀신을 먹은 사람」을 발표하고 다음 호에 속편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방정환이 『천도교회월보』를 통해 동화를 발표하겠다고 기획하고 구상한 작품이 바로 「귀신을 먹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 뒤에 방정환의 조선동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개벽사를 통해 ‘고래 동화 발굴’에 참여하게 되었다.

외국동화의 수입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우리 동화의 무대의 기초가 될 古來童話의 발굴이 아모 것보다도 難事이다. 이야말로 실로 難中の 難事이다.

세계동화문학계의 重寶라고 하는 독일의 그리트 동화집은 그리트 형제가 50여 년이나 長歲月을 두고 지방 지방을 다니며 고생고생으로 모은 것이라 한다. 일본서는 明治 때에 文部省에서 일본 고유의 동화를 纂集하기 위하여 전국 各府縣 당국으로 하여금 각기 관내의 각 소학교에 명하여 그 지방 그 지방의 과거 및 현재에 구전하는 동화를 모으려 하였으나 성공을 못하였고 近年에 또 俚語와 동화를 모집하려다가 政府의 豫算삭감으로 인하여 또 못 이루었다 한다.

이러한 남의 예를 보면 古來童話 모집이 如何히 難事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정부이니 문부성이니 하고 미들 곳도 가지지 못한 우리는 남의 50년 사업에 100년을 費한대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일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이 難中の 難事임에 不關하고 開闢社가 이 뜻을 納하야 靑연히 今番 古來童話 모집의 擧에 出한 성의는 무한 감사한다. 그리고 또 이 의미있는 일에 응하야 손수 동화 발굴에 조력해 주는 응모자 諸氏에게도 나는 감사를 들이려 한다.

얼마 잊지 안하서 그들의 원고는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흔

10) 위의 책, 93-97쪽.

寶玉 가튼 동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을 나는 깊은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다.¹¹⁾

당시 방정환은 외국동화의 수입보다 절대적으로 조선의 현실에서 중요한 것이 ‘고래 동화’의 발굴에 있다고 보았다. 독일 그림형제의 이야기 수집 노력과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구전 동화 모집처럼 조선에서의 ‘고래 동화’ 모집이 가장 시급한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개벽사를 통해 ‘고래 동화’ 현상 모집을 실시하였고, 그 동화를 기다리는 기쁨을 나타냈다.

모집된 數로는 150여 편에 달한 것은 실로 예상 이상의 상황이었다. 당선된 동화를 신년호에 발표할 일이오나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本號에는 爲先當選者의 氏名만 발표하고 그 내용과 選者의 考評은 來號부터 次第掲載하겠습니니다.¹²⁾

‘고래 동화’ 현상 모집에 150여 편이 도착하고, 날짜가 지나서도 계속 도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선작을 뽑아『개벽』을 통해 발표하였다. 지역적으로 보면, 경성, 황해도, 경남 등 조선의 전 지역에서 참가하였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선 작품명: 숫닭의 내력/『금선』의 이야기/ 고양이와 개/ 또드락 방맹이/ 특기의 재판/ 개고리 이야기/ 당나귀 색기/ 애무한 독거비/ 달쥐의 혼인/ 거지 두 아이/ 구렁이 신랑/ 해와 달/ 선생님의 벼루/ 범과 할머니/ 안즌뱅이와 장님/ 날방우 이야기/ 목합숙의 너왕/ 옥동의 괴화/ 소원보다 큰 복/ 지혜 있는 소녀/ 범과 특기 이야기/ 욕심쟁이 서생/ 호랭이와 특기와 독거비/ 피 만흔 아해

미려한 상품받을 수 있는 작품: 특기의 재판(2편)/ 고양이와 개(2편)/ 또드락 방맹이/ 당나귀 색기/ 옥동의 괴화/ 숫닭의 내력(2편)

당선 작품은 24편이 선정되었는데 3단계로 나뉜다. 선정 작품, 선정 작품과 동일한 제목인데 당선이 되지 않은 것, 동화 연구 자료가 될 것이 그것

11) 소과, 『새로 開拓되는 『童話』에 關하여, 特히 少年 以外의 一般 큰 이에게』, 앞의 책, 23-24쪽.

12) 위의 책, 100쪽.

이다. 방정환은 외국동화와 조선동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수용하여 자신만의 동화를 만들었다. 그가 심사숙고하던 끝에 내놓은 '귀신동화'를 통해서 그의 의도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3. '귀신 동화'

3.1. 「귀신을 먹은 사람」

「귀신을 먹은 사람」은 방정환이 외국동화인 「왕자와 제비」¹³⁾를 발표하고 나서 재미있는 동화, 창작동화를 선언한 이후 근 1년이 지난 시점에 나온 작품이다. 방정환의 베스트셀러인 『사랑의 선물』이 출판되기 전이다. 방정환은 「귀신을 먹은 사람」을 발표한 이후에 다음호에 계속 연재할 것을 예고했지만, 속편은 2년 뒤인 1924년 10월 『어린이』에 「성철의 귀신 잡기」로 소개되었다. 외국동화를 소개하는 일보다 조선동화를 발표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귀신을 먹은 사람」은 똑같은 내용이 다른 잡지에 총3회 수록되었고, 속편은 1회만 남아 있다.

목성, 귀신을 먹은 사람, 천도교회월보137호, 1922.1

몽중인, 귀신을 먹은 사람, 어린이, 제2권 제9호, 1924.9.6.

몽중인, 성철의 귀신잡기-귀신 먹은 사람의 속편, 어린이, 제2권 제10호 가을 특별호, 1924.10.

방정환, 귀신 먹은 사람 조선농민 2권 3호, 1926.3

「귀신을 먹은 사람」의 주인공 성철이는 친척 아주머님 댁에 갈 때, 강에서 잡은 생선 한 마리를 들고 길을 떠났다. 성철이는 산 속에서 새 그물에 걸린 꿩을 보고는 꿩을 가지고 갔다. 미안한 마음에 생선을 새 그물에 넣어 놓았다. 성철이가 지나간 후에 그물 임자가 와서 새 그물에 생선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귀신의 장난이라고 여기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13) 『천도교회월보』126호, 1921.2.

새 그물 임자는 새 그물에 생선이 걸린 것은 산신령이 노해서 벌어진 ‘변고’라고 믿고 마을 사람들 모두 그렇게 여겼다. 이들은 ‘변고’를 해결하기 위해 예전에 신령님을 모셨다는 노인을 찾아갔다.

『그 생선은 산신령님의 변하신 몸인데 지난 번 제 지낼 썩에 이 동리 사람들이 정성은 업시 함부로 지녀여서 그 제에 부정이 썩 것도 몰고 지냈스나 신령님은 대단히 로하셔서 이 동리를 벌을 주기 위하여 생선으로 변하야 내려 오신 것인즉 어서 무슨 변이 나기 전에 그 생선을 잘 모시여 늦코 동리 백성이 모다 나와서 정성껏 사죄를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 하였습니다.¹⁴⁾

이 마을은 산신을 모시는 마을이다.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을마다 모시는 신들이 있었다. 신령님을 모시는 노파는 마을사람들에게 제를 지낼 때, 정성을 드리지 않아서 부정이 났다고 이야기했다. 부정의 결과는 노한 산신령이 새 그물에 생선을 달아 두어 화가 났음을 선포하고 7일 동안 비를 내려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여 그 부정함을 징치한다는 내용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해명할 수 없었다. 비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홍수와 같은 재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던 시절에 이러한 재난은 인간의 탓으로 귀결되었다. 이 마을의 변고는 제사 지낼 때의 부정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산신령의 현신인 생선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고, 노한 산신령님을 위해 제사를 다시 지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엇더케던지해서 신령님의 로기를 풀고 이 동리의 큰 재변을 면하려고 동리 사람들은 신령님 모신 로파의 지휘대로 마을 뒤 산맛 큰 느트나무 밧헤 풀을 썩고 썩을 다지고 그리고 아주 급한대로 조그마하게 당집을 짓고 그 안에 생선을 모시여 늦코 음식을 차려 늦코 축불을 켜고 만슈향을 피우고 치성을 드렸습니다.¹⁵⁾

14) 목성, 「귀신을 먹은 사람」, 『천도교회월보』137호, 1922, 95쪽.

15) 목성, 위의 책, 96쪽.

마을 사람들은 노파의 말대로 당집을 짓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변고를 물리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비는 멈추지 않았다.

아주머니 댁에 간 성철이는 비가 많이 내려 하루는 그 곳에서 머물고 다음 날 돌아가는 길에, 평을 가지고 갔던 마을에 잠시 들리게 되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치성을 드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성철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치성을 드리는 이유를 듣고 나서, 자신이 신령님 대신 비도 그치고 변고도 없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성철이는 그 비에 몇 십리를 걸어오느라고 식장하여서 그 당 안에 차려 노은 치성 음식을 모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 반찬으로는 (다른 이들이 불을 피워 오갸다닛가 그것을 못 가져오게 말니고) 그 **당집을 허려서 나뭇떡이만 쉼려서 불을 지르고 그 불에다가 그 신령님이란느 생선을 구어서 맛있게 쫓아 먹었습니다.**

신령님을 먹닫게 저런 사람이 어디 잇느냐고 눈이 쫘그래져서 쳐다보는 동리 사사람을 보고 성철이는 니러서서 다시 한울을 쳐다 보았습니다 한울의 구름 벗겨지는 것을 보고 성철이는

『내가 이럿케 신령님을 먹어 바렷스닛가 인제 아모 일도 업습니다 아모 렴려 마십시오 그리고 우선 오늘부터 비가 굿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나는 아물 곳에 사는 리성철이라고 귀신 잡아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올시다』하고는 픽 우셨습니다.¹⁶⁾

성철이는 마을에 일어난 ‘변고’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마을 사람들은 새 그물에 생선이 걸린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성철이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 성철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깊은 산 속에 쳐 놓은 새 그물에 자연적으로 생선이 걸릴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새 그물에 생선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 생선을 가져다 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 한다. 새 그물에는 새만 걸려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 반면에, 성철이는 산이나 강이라는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지역적인 한계에 갇혀있지 않다. 오히려 평과 생선이라는 물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값

16) 목성, 위의 책, 98쪽.

어치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성철이는 강에서 얻은 생선보다 산에서 얻은 귀한 썩을 바꿔치기 할 수 있었고 대신에 생선을 새 그물에 놓을 수 있었다. 새 그물에는 새만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면, 성철이는 생선을 두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성철이가 한 행동을 알지 못하고, 새 그물에 생선이 걸린 현상만을 인식하고, 이것을 마을에 내려진 재앙이라고 여긴다. 마을 사람들이 산의 속성과 강의 속성만을 고정적으로 인식한 한계를 보여준다.

이 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성철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고를 제거해 주겠다고 나섰다. 그 해결책은 성철이가 산신령을 위해 차려진 음식을 모두 먹고, 당집을 허물고, 신령님이 노해서 변한 생선까지 먹어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 공교롭게도 그 때 마침, 퍼붓던 비가 그치자 마을 사람들은 성철이를 ‘귀신을 먹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성철이는 자신이 바꿔치기한 생선을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먹었을 뿐인데, 마을 사람들은 귀신을 먹어서 잡은 사람으로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벌어진 현상만을 인식할 뿐이다. 성철이가 생선을 먹어치운 그 순간 비가 멈추었다는 그 사실만 인식할 뿐이다. 그 일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 성철이가 ‘귀신 잡아먹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자칭하면서 웃었던 것은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자신이 바꾸어 놓은 ‘생선’이었기 때문이다. 성철이는 자신이 저지른 문제를 해결했을 뿐인데 귀신 잡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이 부분에서 ‘귀신을 먹는 사람’의 주인공인 성철이의 성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철이는 산과 강이라는 고정된 속성에 대한 확실적인 관념보다는 물건의 가치와 적절성을 판단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명할 수 없었던 일을 ‘변고’라고 여기고, 그 변고를 산신령님이 부리는 노여움이라고 여긴다.

부정 탄 음식, 부정한 행위로 발생하는 신의 노여움을 푸는 방법은 신을 달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철이는 이러한 방법이 아닌 신을 먹어버리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신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성철이가 신을 달래는 방법이 아닌 신으로 현신한 생선을 먹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생선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

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생선을 산신령의 노여움으로 보고 있으니 당연히 생선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생선을 모시고 음식을 차리고 당집을 지어 지극정성을 다 하였다.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잘못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성철이는 사물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던 셈이다.

이렇게 성철이는 귀신을 잡는 사람으로 유명해 졌고, 『귀신을 먹은 사람』(속편)에서 다른 마을에 나타난 귀신을 잡는 일에 불려가게 되었다.

귀신을 먹고 한 동리의 재변을 업시하여 쥘었다는 성철이의 소문이 각도에 퍼져서 귀신 먹는 성철이라고 아쥬 유명하여졌습니다.

그 후 어느 시골 큰 부자집이 있난디 그 집에 귀신의 작란이 생겨서 밤이면 별별 작란을 다하야 재산 보물을 가져 갔을 뿐 아니라 밤마다 밤마다 뒤겨서 곡성이 나는 고로 내여다보면 큰 괴화나무에 파란 불이 반짝어리며 거기 무서운 귀신이 나와서 쥘인딕 팔색씨를 제물로 바치라고 호령을 한다. 그러서 성철의 소문을 듣고 다리러 왔다고 안 간면 잡아라도 갈 듯이 달겨 들었습니다. (다음호)¹⁷⁾

성철이가 귀신을 먹었다는 소문은 전국에 퍼지고, 귀신 때문에 고통 받는 어느 집에서 귀신을 잡기 위해 성철이를 데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성철이는 귀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 속에서 자신의 역할만을 다했을 뿐이다.

마음 약한 성철이는 이약이만 듯고 『아니라오 내가 정말 귀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여 버린 생선을 가지고 귀신이라고 썬들기에 그 생선을 먹었더니 귀신을 먹었다고 헛소문이 낫다오 귀신을 먹닷게 귀신이란 말만 드러도 나는 니러나지 못하는 사람이라오』¹⁸⁾

부잣집에 잡혀 가게 된 성철이는 아무리 자신이 귀신을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하여도 소용없었다. 부잣집에 들어온 귀신은 돈을 빼앗고, 딸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성철이는 이번

17) 목성, 위의 책.

18) 몽중인, 『성철의 귀신잡기-귀신 먹은 사람의 속편』, 『어린이』, 제2권 제10호, 1924, 30쪽.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성철이는 것호로는 아모 말 못하나 온르은 낮동안에 도망을 하고 말니라고 속으로 잔뜩 도망갈 요량을 하고 잊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밥상이 나오고 또 뒤 밋쳐 하인이 큰 그릇에 생선 조린 것을 담아 들고 나아 왔습니다. 성철이는 그것을 바다 들고 무심코 생선과 하인을 번가라 보면서 『**으응 이 놈이 귀신 노릇하든 놈이로군……**』 하였습니다.

그러닛가 그 말을 듣고 하인이 얼굴빛이 별안간에 셋과래졌습니다. 이 하인이 야말로 밤마다 귀신노릇을 하여 사람을 놀래이고 이 집 재산과 쌀을 빼아스려 하는 아조 흉악한 낫븐 하인 놈이었습니다.¹⁹⁾

성철이는 귀신을 무서워하여 어젯밤에 나타난 귀신을 생각하고는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 아침 밥상을 받았을 때, 생선을 보고는 성철이가 생선에게 ‘귀신 노릇하던 놈’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성철이는 생선을 보고 새삼 예전에 자신이 바꿔치기 했던 생선을 떠올리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귀신 장난을 하던 하인은 성철이가 자기에게 하는 소리로 오해했다.

오늘 밤에는 꼭 귀신을 잡던지 다시는 못오게 쫓던지 아조 잡수어 버리시던 지 세 가지 중에 꼭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닛가 성철이는 하도 딱하여서 머리를 극적극적하고는 탄식하는 말로

『허허 오늘밤에는 성철이가 꼭 죽었고나!』 하였습니다. 그러닛가 그만 앓가 그 하인놈이 얼굴이 파래져서 뛰어올나 오더니 성철이 압헤 와서 업드려서

『그저 죽을 죄로 잘못하였스니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하고 작고 빙니다. 원래 이 놈의 일홈이 성철인데 지금 성철이가 오늘 저녁에는 자기가 귀신 때문에 죽겠구나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오늘밤에는 저를 꼭 죽이겠다하는 말로 듣고 그만 겁이 나서 자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성철이는 속으로 『오오 이 놈도 일홈이 성철이로구나』 하면서 『그럼 너의 목숨은 살려 줄 것이니 주인께 자백을 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놈은 자기가 재물과 주인의 쌀에게 욕심이 생겨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그런 짓을 한 것을 주인께 자백하였습니다.²⁰⁾

19) 몽중인, 위의 책, 33쪽.

부잣집 사람들은 성철이에게 이제 '귀신을 잡든가, 쫓아내든가, 먹어버리든가' 셋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를 들은 성철이는 무심결에 '오늘 밤에 성철이가 죽었구나'라고 내뱉었다. 성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 장난하던 하인이 이 소리를 들었다. 하인은 성철이가 자신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는 스스로의 죄를 귀신 잡는 성철이에게 자백하게 되었다. 성철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옆에서 귀신 장난하던 하인은 그 이야기를 모두 자기 이야기로 동일시하였다. 이름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철이가 우연히 말한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귀신을 잡게 되었다. 성철이가 귀신을 퇴치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상황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이 귀신을 잡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하인의 이름이 성철이라는 점도 큰 작용을 했다.

염희경은 『귀신을 먹은 사람』을 순수 창작 동화로 속편은 창작전래동화²¹⁾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귀신을 잡는 속편의 이야기가 『돌이와 개구리』²²⁾이야기를 그대로 삽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돌이와 개구리』는 부잣집 돌이가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집안의 물건을 숨기고 찾아내는 과정에서 개구리는 점을 잘 치는 아이가 되어 소문을 타고 중국에까지 가서 임금의 옥쇄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개구리는 근심하다가 우연히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범인의 이름과 동일하였다. 옥쇄를 훔친 자가 개구리에게 와서 자백을 하여 개구리는 자연스럽게 옥쇄를 찾게 되었다. 『성철이의 귀신 잡기』의 서사구조는 『돌이와 개구리』와 닮아있다. 하지만 개구리가 옥쇄를 찾게 된 것이나, 성철이가 귀신을 잡게 된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성철이가 전편에서 생선의 존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믿는 생선을 먹어치워 문제를 풀었다. 이후 발표된 속편에서 성철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문제에 골똘하고 있다가 귀신 장난을 일으킨 하인 성철이를 잡게 되었다. 처음 『귀신을 먹은 사람』에서 귀신을 잡는 방법은 성철이가 자신의 경험으로 마을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속편에서 성철이는 자신의 경험을

20) 몽중인, 위의 책, 34쪽.

21) 염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 앞의 논문, 178쪽.

22) 염희경은 『가짜 점쟁이』, 『점 잘 치는 훈장 이야기』로 보았다. 같은 유형의 이야기인데, 『돌이와 개구리』가 이 이야기의 성격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어, 이 제목으로 하였다.

되새기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귀신을 잡을 수 있었다. 성철이가 귀신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2. 「양초 귀신」

방정환의 속편 「성철의 귀신잡기」 발표 이후 근 1년 후에 나온 작품이 바로 「양초귀신」²³⁾이다. 이 작품은 『어린이』와 『별건곤』에 발표되었고 동화구연²⁴⁾으로도 인기를 끌었다.

몽중인, 「양초귀신」, 『어린이』3권 8호, 1925.8.

파영, 「양초귀신」, 『별건곤』3호, 1927.1

「양초 귀신」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다. 일본 고지마 마사지로(小島政二郎)의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 양초물고기」 이야기도 「양초 귀신」과 유사하여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한다.

고지마 마사지로(小島政二郎),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 『긴노호시(金の星)』 6권7호, 긴노호시사(金の星社), 1924.7.²⁵⁾

고지마 마사지로(小島政二郎)의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는 방정환의 「양초 귀신」보다 약 1년 전에 발표되었다. 두 작품의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마사지로(小島政二郎)의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는 ㉠로, 방정환의 「양초 귀신」은 ㉡로 표기 하겠다.

23) 『어린이』3권 8호, 1925.8.1.

24) 세계아동전람회에서는 예당과 가티 지난 사일 오후 네시부터 턴도교 교당 안에서 배제음악 대의 음악으로 여흥을 시작하여 삼광유치원의 표정유희와 턴도교 소년의 하모니카 독주와 무도가 잇섯스며 **소파 방정환씨의 양초귀신이란 동화가 잇서 매우 성황을 일우엇더라.**(동아일보, 1928.10.6.)

25) 이 자료는 박종진 연구자가 필자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 자료로 「양초 귀신」이 외국동화를 방정환식으로 개작했다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와 양초 귀신 내용 비교]

| | ㉠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 | ㉡ 양초 귀신 |
|--------|-----------------|-----------|
| 양초구매자 | 촌장 | 송서방 |
| 구매 장소 | 에도 | 한양 |
| 사용법 안내 | 연장자 | 글방선생 |
| 양초 사용 | 국을 끓여 먹음 | 국을 끓여 먹음 |
| 해결 방법 | 연못 속으로 들어감 | 물 속으로 들어감 |

두 작품 모두, 서울에 구경을 간 인물이 양초를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양초를 구입했다.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에서 촌장은 의도적으로 양초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방정환의 『양초 귀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처음 보는 물건을 받기는 받았어도, 무엇하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여, 펍 갑갑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다 준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물어 보기는 부끄러우니까 물어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끼리만 이 집저 집 찾아다니면서 서로 물어 보았으나, **한 사람도 그 하양고 가늘고 깎끔한 것이 무엇하는 것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²⁶⁾

아주 깊은 시골에 사는 양반이 서울 구경을 갔다가 신기한 물건인 ‘양초’를 하나 사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신문물을 접해 보지 못한 시골 사람들은 그 용도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동네 사람들이 그 물건의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물건을 주는 사람에게 그 방법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골에만 살아왔던 동네 사람들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그 용도를 알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고민 끝에 동네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은 글방 선생을 찾아갔다. 글방 선생 역시 이 물건의 사용법을 알지 못 했다. 하지만 글방 선생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글방 선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그것이 무엇

26) 몽중인, 『양초 귀신』, 앞의 책, 14쪽.

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㉞ 그 속에서 사쿠쥬라는 남자가,
 『저, 가혜에 할아범.』하고 그 집 주인이자 올해 아흔아홉이 되는, 마을 제일로
 아는 게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로소쿠라는 건 어디에 쓰는 건가?』
 『난 또 뭘 물어보나 했더니 그거? 그걸 자네 모르나? **그걸 모르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아니, 나만 모르는 게 아니니까 죽을 건 없지. 온 마을 사람들이 한사람도 모
 르지.』
 『그러면 다들 죽어버리라고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지. 알고 있으면 알려 주시구랴.』 (중략)
 『뭐라고, 모쿠에몬씨. 영감도 모르는게야? 그거야, **떡을거지.**』²⁷⁾

㉟ 『**그까짓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죽게, 죽어 버리게. 죽는 게
 옳으이…….**』
 『예, 죽더라도 시원히 알기나 하고 죽겠으니, 제발 좀 가르쳐 줘시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기로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그것이 국 끓여 먹는 것이
 라네. 서울 사람들은 그 걸루 국을 끓여 먹어요.』²⁸⁾

㉞의 연장자와 ㉟의 글방 선생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것도 모르면 죽어버리리면서 동네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버린다. 그러면서 모두 먹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㉞ 『이건 생선이야.』
 『생선?』
 『로소쿠 우오라고 해서 에도 사람들은 하루에 서너 개 정도씩 먹지요.』
 사쿠쥬 『그래도, 생선치고는 비늘도 아무것도 없는데.』
 『생선이라면 비늘이 꼭 있을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렸어. 생선이라도 비늘

27) 고지마 마사지로(小島政二郎),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 『긴노호시(金の星)』6권7호, 긴노호시사(金の星社), 1924.7, 24-25쪽.
 28) 몽중인(夢中人), 앞의 책, 15쪽.

이 없는 것도 있지.』

『그래도 아무래도 생선 같지는 않은데?』

『어허, 조용히 좀 해, 이봐, 할멈 로소쿠 물고기를 가져와 보게.』

『당신, 이게 물고기 맞아? 아주 깨끗한 물고기도 다 있네. 여기 쏘죽한 건 뭐
가요?』

『그건 주둥이지.』

『어라? 여기 구멍이 있네.』

『그건 배꼽이야.』

『이건 어떻게 먹는거지?』

『음, 조리거나 구워도 먹을 수 있지만, 오늘처럼 추운 날에는 된장국이 가장
맛있을 거야.』

『그럼 한번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게 나누어주지 않겠나?』

『아, 물론이지. 할멈. 된장국을 끓여서 그 속에 이 로소쿠를 부러뜨려서 넣고
뜨거울 때 사람들에게 담아주시게.』²⁹⁾

㉠ 『백에(白魚)라고 물 속에 잇는 생선을 잡어서 말린 것이야』

『이상한 생선도 만습니다. 눈썹도 업고 이 압헤 요 쏘죽한 것(심지)은 무업닛
가』

『눈썹이 원래 업는 생선이야……그래서 더욱 귀(貴)하다는 것이라네 쏘죽한
것은 그계 주둥이 아니고 무언가』

『이 밋헤 잇는 이 구녁은 무업닛가』

『그것은 쏙 구녁이지 무어야』

『네.네 알엇습니다 말삼을 듯고 보니 참말 생선말린 것임니다 그려……대테
서울 사람들은 별생선을 다 잡아먹는군요』

『그러기에 서울이 좇타는 것 아닌가』

『그래 이것으로 죽을 엇더케 쓸임닛가』

『허허 무식한 사람이라 갑갑도 하군? 물을 끌이고 이것을 칼로 얹다랏게 썰어
넛코 간을 쳐 먹는 것 아닌가…』

『그계 그러케 맛이 잇슬가요』

『맛이 잇고 말고……자아 이왕이니 오늘 우리집에서 끌여 먹어 보고 가게』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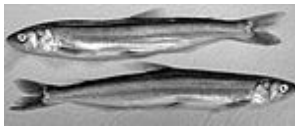
29) 고지마 마사지로(小島政二郎), 앞의 책.

30) 몽중인(夢中人), 앞의 책, 15-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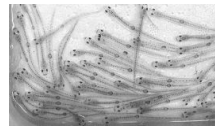
두 작품에서 물고기라고 믿지 않는 마을사람들에게 연장자와 글방 선생이 물고기인지를 설명한다. ㉞는 주둥이와 배꼽으로, ㉟는 주둥이와 똥구멍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양초’를 어떻게 물고기 혹은 ‘백어(白魚)’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장자와 글방 선생의 시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경험자이면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연장자와 글방 선생 역시 마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싫어서 모르는 물건임에도 아는 체 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연장자와 글방 선생이 고민 끝에 내린 물고기(백어)라는 인식은 나름 근거가 있다.

일본에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라는 ‘양초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에서 짜낸 기름을 태워 조명에 사용하고, 또한 이 물고기를 말린 것을 가지에 끼워 간단한 촛불로 사용되었다”³¹⁾라고 한다.

『양초 귀신』에 사용된 백어라는 고기를 찾아보면, 길고 흰색에 양초 심지 같은 눈이 달려 있다. 글방 선생은 눈은 없고 그 까만 백어의 눈을 입이라고 하였다. 양초의 아래쪽은 백어의 항문으로 보았다. 딱딱한 양초를 보고 글방 선생은 말린 백어라고 규정하고 끓여서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 백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길이는 겨우 수촌이고 비늘이 없으며 전신이 희고 밝은데 다만 두 눈의 검은 점은 알아볼 수 있다.”³²⁾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



백어

31) ろうそくの歴史, <https://ja.wikipedia.org>.

32) 문화원형백과 조선시대 식문화, 2003.,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culturecontent.com>.

연장자와 글방 선생이 물고기라고 규정한 이유는 당시에 양초와 유사한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는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가 있었고, 이 물고기는 오래 전부터 서양에서 양초처럼 사용되었던 흔적도 발견된다. 조선의 백어는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의 기록처럼 비늘이 없고, 흰색에 심지와 같은 검은 점만 있다. 백어와 양초 사이의 유사성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 동화의 연장자와 조선동화의 글방선생은 모두 자신이 지닌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만 새로운 물건의 용도를 파악한 셈이다.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이 양초를 먹고 난 후에 몸에서 불이 날 것을 염려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는 삽화는 양국이 동일하고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㉑ 『에헉~~!!그거 큰일이다. 불을 밝히는 걸 마시고 뱃속에 화상이라도 입으면 어찌지? 담배라도 피워서 불과 불이 부딪히면 뱃속에서 불이 일어나는거야 나? 이걸 어찌지?』

『하는 수 없지. 물에 들어가자.』

『그게 좋겠어. 목에 새끼줄을 매고 우물 속에 매달릴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우물에 들어갈 수 있어?』

『자, 친주사마(鎮守様)연못으로 갑시다.』

『맞다, 그게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모조리 일어서서 친주(鎮守)숲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으로 풍덩풍덩 뛰어 들어가 목만 내놓고

『아휴, 사람한테 이상한 걸 먹여가지고 봉변을 당했네. 그래도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 먹은 로소쿠 불도 꺼지겠지?』³³⁾

㉒ 그러나 그중에도 췌뻑안 얼굴을 푹 숙으리고 안짓는 선생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겁이 났습니다. 그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배 속 불씨가 드러가 있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해서 별안간에 소리를 지르며 『배속에 불이 니러나기 전에 물 속으로 뛰여 드러가자!』하면서 데일 압장을 서서 뛰어나가 마을 뒤 내사가에 가서 모다들 옷을 훌다 훌다 버서버리고 물 속으로 풍덩풍덩 드러가서 목아지만 물 우에 내어놉코 불이 안 나도록 몸을 물 속에 잠그고 잇섯습니다.

달이 환-하게 밝은 밤이었는데 늦게 지나가는 나그네(旅客) 한 사람이 그러치 안어도 내사가로 혼자 지나가기가 겁이 나는데 냇물 우에서 짓걸짓걸 하는 소리

33) 고지마 마사지로(小島政二郎), 앞의 책, 27쪽.

가 나는고로 깜짝 놀라 달빛에 자세 보닛가 내스물에 사람의 대가리만 수박갓치 떠 잇섯습니다.

『올치 저놈들이 독감이로구나...독감이는 담배불을 무서워 한다드라 하고 불 이낫케 담배를 담어 물고 담배불을 붓치느라고 석양 불을 드욱 그엇습니다. 물 속에 잇는 선생과 상투쟁이들은 간신이 배 속에 잇는 초에 불이 안이 넘어나도 록 물 속에 잇난대 나그네가 석양 불을 그으닛가 그 석양 불 때문에 자키네의 배 속에 잇는 초에 불이 켜질가 겁나서

죽을 등 삭 등 몰으고 소리 치면서

『여보게 저놈이 석양 불을 그어 우리 배 속에 초에 불을 켜려고 하니 모다 머리까지 물 속으로 잠그게 큰일나네.』

하고 모다 머리와 얼굴까지 물 속으로 잠겨 버리고 말엇습니다.

나그네는 그런 줄은 몰으고 내스물 우에 수박갓흔 독감이 대가리만 엮어진 것을 보고

『대태 독감이란 놈들이 담배 불은 데일 무서워 하는군.....』 하고 지나가 버렸 습니다.³⁴⁾

방정환 『양초귀신』은 결말에서 일본의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와 차 이가 있는데, 그것은 나그네와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들어가 양초를 먹은 뱃속에서 불이 꺼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양초귀신』의 나그네는 이런 사람들의 모양을 도깨비로 인식하고 도깨비가 싫어하는 불을 피워 사람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다.

㉠ 여러분, 오늘은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³⁵⁾

㉡ 대단히 더운 날이니 숲흔 이약이보다도 무서운 이약이보다도 우습고 우습고 허리가 압흐게 우수한 이약을 하나 하지요.³⁶⁾

두 작품에서 모두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지만, 『양초귀신』은 ‘우습고 우습고 허리가 압흐게 우수한 이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방정환은 일본의

34) 몽중인(夢中人), 앞의 책, 18쪽.

35) 고지마 마사지로(小島政二郎), 앞의 책, 24쪽.

36) 몽중인(夢中人), 앞의 책, 15쪽.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를 보고, 사건을 일으키는 주인공인 연장자를 글방선생으로 ‘양초 물고기’도 ‘백어’로 바꾸었다. 양초를 사온 촌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건의 사용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방법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다. 반면에 『양초귀신』에서 마을 사람들은 사용법에 대해 묻지 않았다. 글방 선생 역시 모르는 것을 질문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방정환은 마을 사람들과 글방 선생이 모르는 것을 묻지 않는 허위의식을 비판하였고,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몰아서 이 이야기가 주는 해프닝적인 상황을 더 강화시켰다.

4. ‘귀신’의 의미

방정환이 발표한 『귀신을 먹은 사람』과 『양초 귀신』에는 고정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인간형들이 존재한다. 『귀신을 먹은 사람』에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살아온 경험 안에서만 행동한다. 새 그물에 걸린 ‘생선’은 ‘변고’의 조짐으로 읽힐 뿐이다. 더욱이 신령님을 모시는 노파는 신령님이 노하여 ‘생선’으로 변신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까지 내린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잘못을 가르쳐 줄 인물이 아무도 없다.

당시 ‘미신 타파’와 ‘완고 타파’가 사회적 화두가 되어 강연과 연극 등 교화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어린이들의 교과서에서도 ‘미신’이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學問과 知識이 없는 사람은 迷信에 빠지기 쉬운지라. 엇더한 나라에던지 學問이 發達치 못한 時代에는 迷信하는 者이 만히서, 今日에는 三尺童子라도 밋지 아니할 일을 밋었스나, 學問의 進歩를 팔아서, 迷信者가 漸減하나니라. 孔子도 『知者는 不惑』이라하시니라.³⁷⁾

『우인(愚人)의 미신(迷信)』에서 미신에 빠지는 사람은 학문과 지식이 없

37) 『愚人의 迷信』, 『조선어급한문독본』 권4, 1918, 15쪽.

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었다. 배움을 통해 얻는 지식만이 미신을 타파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은 무당에 의지하여 병을 고치거나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관습이 있어 무당이 차지하는 역할이 컸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하는 소행으로 치부되었다.

1918년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권4에 수록된 5과 「우인의 미신」, 6과 「한문(안향)」 내용이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두 과의 내용이 합쳐져서 안향으로 귀속 되었다. 5과에서는 일반적인 무당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미신에 빠지는 사람을 경계하였다. 6과에서 안향이 상주관판으로 있을 때, 무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백성들이 모두 우려하였으나 안향이 의지를 꺾지 않고 기다려서 무당의 황당한 일을 금지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5과와 6과가 결합하여 1924년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5, 「안향의 금무(禁巫)」로 만들어 안향의 일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신을 타파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강연과 논설의 형태로도 퍼져 나갔다.

◇미신은 이성이 허락지 않는 신념과 행사를 이름이니 현대 사상의 정도가 용납지 아니하는 선대신념의 타력이거나 혹은 부정한 무리가 무엇이 이(利)함이 있고자하여 인민을 기망하는 술책이다 정화수로 두신의 노염을 풀어서 병의 경과를 순케 한다하고 천하태평에 세침을 박아서 안질을 고친다한다 이와 가치 소위 예방으로 질병을 치료한다함은 전자의 예라 할 것이요 중국의 황건적이니 백련교이니 칭하든 무리가 혹은 국가를 요란케하고 혹은 민심을 고혹(蠱惑)케 하였다 이와가치 소위 좌도(左道)가 세상에 사행함은 후자의 예라 할 것이다.³⁸⁾

미신은 정화수로 두신(痘神)의 노염을 풀어서 병을 낮게 하고, 세침을 박아서 안질을 고친다는 것과 같이 허무맹랑하다. 하지만, 특별한 의학적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에 ‘귀신’만큼 좋은 소재도 없었다.

방정환의 세 편의 귀신동화에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귀신을 먹은 사람」에서 새 그물 주인이 새가 아닌 생선이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변고라고

38) 미신, 동아일보, 1925.1.13.

여긴다. 새 그물 주인과 함께 마을 사람들 모두는 신령님을 모시는 노파를 통해서 귀신의 현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치성을 드린다. 하지만 결과는 어이없게도 새 그물 속에 잡힌 핑을 가고, 그 자리에 생선을 놓은 칠성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해결된다. 이 일은 칠성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귀신을 먹은 사람』(속편)에서 주인공 성철이는 우연히 귀신을 잡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게 되어 부잣집에 나타난 귀신을 잡으러 가게 되었다. 하지만 성철이에게 귀신을 잡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편에서 일어난 사건은 성철이가 벌인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뿐이었다.

속편에서 성철이가 귀신을 잡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우연히 밥상에 나온 생선을 보고, “으-응 이 놈이 귀신 노릇하든 놈이로군!” 이라고 말했다. 실은 밥상을 가지고 온 하인이 귀신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하인은 성철이가 생선에게 한 이야기를 자신에게 한 이야기로 듣고 성철이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잣집에서 성철이에게 귀신을 잡아 달라는 성화에, 성철이가 혼자서 ‘허허 오늘밤에는 성철이가 꼭 죽었고나!’라고 말하였다. 하필 그 때, 그 하인이 성철이의 말을 듣고는 스스로 성철이 앞에 와서 자백하게 되었다. 하인의 이름이 성철이었기 때문이다.

『귀신을 먹은 사람』(속편)에서 성철이는 지난 일을 상기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귀신을 잡게 되었다. 성철이가 자신이 바꾸어 놓은 생선을 귀신이라고 믿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풀 수 없었던 문제이다. 결국, 성철이가 『귀신을 먹은 사람』(속편)에서 우연히 귀신을 잡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성철이가 가지고 있었던 전편에서 보여준 지혜와 용기의 힘이 『귀신을 먹은 사람』(속편)에까지 작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잣집 영감은 성철이의 이런 점을 높이 보고,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였다.

방정환의 『양초귀신』은 학문과 지식의 수양을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새로운 문물인 ‘양초’를 알지 못하는 글방 선생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사물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실인양 강요한다. 글방 선생이 미리 ‘양초’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었다면, 마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을 터이다. 아니, 송서방이 양초를 가지고 왔

을 때, 그 사용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물어보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글방 선생은 처음 보는 양초에 대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 버렸고,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했다. 글방 선생과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글방 선생의 말을 신뢰하고 모두 양초를 끓여 먹었지만, 서울에서 양초를 사 온 송서방은 먹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는 데 쓰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배 속에 불이 켜질 것을 염려하여 모두 물속으로 뛰어가 버렸다.

『양초 귀신』에는 『귀신을 먹은 사람』의 성질이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인물이 없다. 성질이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혼란에 빠져있는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였고, 부잣집에 닥친 재앙도 해결해 주었다. 성질이가 지닌 지혜와 용기 덕분이었다. 하지만, 『양초 귀신』에는 자신의 무능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식에 가득 찬 글방 선생과 모르는 것을 남에게 묻지 않는 마을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없다. 서울에 다녀올 정도의 송서방 역시 그 난관을 해결하지 못 한다. 설상가상 지나가던 나그네는 물속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도깨비라고 여기고 담뱃불을 피워 마을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방정환은 『양초 귀신』의 부제로 ‘우습고 우습고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였다. 정말 계속 웃긴 이야기들의 연속이다. 그러나 『귀신을 먹은 사람』이야기에서처럼 성질이와 같은 용기 있는 인물이 더욱 절실해 지기도 한다. 끝없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양초 귀신』을 통해 어린이에게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과 무지를 인정하는 자세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방정환은 동화 속에 ‘귀신’을 내세워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 지식과 경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고정된 지식과 경험을 고수하는 인물은 귀신이라는 허상을 퇴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귀신’에 담긴 의식들을 어린이에게 강연하고 교육한다면 어떨까. 그것보다는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동화로 들려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방정환은 당대 어린이에게 필요한 의

식을 동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귀신'에 내포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지식을 제대로 바로잡아 준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나 지식은 귀신만큼이나 무서운 존재이고 어린이가 스스로 그 허상을 깨는 길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뿐이다.

‘귀신동화’에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책

| | 귀신을 먹은 사람 | 양초 귀신 |
|---------|-----------------|---------------------|
| 문제점 | 현상만 인식하는 마을 사람들 | 모르는 것을 묻지 않는 마을 사람들 |
| 잘못된 해설자 | 신령님을 모시는 노파 | 글방 선생 |
| 해결책 | 잘못된 믿음 타파 | 잘못된 지식 바로잡기 |

방정환은 『귀신을 먹은 사람』에서 사건의 현상만을 직시하는 마을 사람들 틈에서 경직된 사고가 아닌 유연한 사고를 지닌 성철이를 해결책으로 등장시켰다. 성철이는 산과 강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사고의 경계를 허물고 잘못된 믿음을 깨뜨려 귀신의 허상을 무너뜨린다. 『양초 귀신』에서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지 않는 마을 사람들과 글방 선생의 허위의식을 꼬집고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다.

방정환은 ‘귀신동화’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인물형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의식을 어린이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모르는 것은 물어봐라’라고 강연하는 것 보다는 재미있는 동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방정환이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는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해 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5. 결론

이 논문에서 방정환이 지닌 외국동화와 조선동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촉발된 ‘귀신동화’ 3편을 통해서 ‘귀신’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방정환이 1922년 7월 자신의 유일한 저서인 번역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1921년 『천도교회월보』에서 보여준 조선 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화를 창작해야 한다는 열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뒤이어 1923년 1월 1일 『개벽』의 『새로 開拓되는 童話』에 關하여, 特히 少年 以外의 一般 큰 이에게』라는 글에서 외국 동화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래 동화의 발굴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정환의 외국동화와 조선동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귀신동화 3편이 완성되었다. 1922년 1월 처음 소개된 『귀신을 먹은 사람』이후 1925년 8월 『양초 귀신』을 발표하였다. 『양초 귀신』은 고지마 마사지로(小島政二郎)의 『로소쿠 우오(ろうそく魚)』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방정환식의 개작으로 주인공의 변화와 서사 전개의 변이를 꾀하였다.

방정환은 외국동화와 조선동화를 수용하여 어린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귀신’을 통해 형상화하였다. 그 결과, 귀신이라고 믿었던 것의 실체는 귀신이 아닌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꼬집기도 했다. 따라서 당대 어린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직접적으로 주인공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극한 혼란의 상태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제시하였다. 방정환은 허울뿐인 ‘귀신’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인간형이 되라는 목소리를 담아냈다.

본고에서는 방정환의 귀신동화 3편만을 다루었다. 앞으로 방정환이 남긴 이야기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정환은 외국동화와 조선동화를 자유롭게 수용하고 그 안에서 방정환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조선의 문제를 그려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앞으로의 연구는 그 노력의 흔적들을 찾아내어 지금의 어린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참고문헌

1. 자료

천도교회월보, 어린이, 개벽, 조선어독본, 『긴노호시(金の星)』

2. 논문

박종오, 「한국의 귀신설화 연구」,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121쪽.

엄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1-279쪽.

엄희경, 「“네이션”을 상상한 번역 동화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에 대하여(1)-」, 『동화와 번역』13, 2007, 157-186쪽.

엄희경,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의 탄생과 번역의 상상력(2)」, 『아동 청소년문학연구』11, 2012, 211-257쪽.

이정현, 「방정환의 번역동화 『호수의 여왕』에 대한 고찰」, 『동화와 번역』13, 2007, 261-296쪽.

장정희·박종진, 「근대 아동문학과 『한네레의 승천』 전유양상」, 『근대아동문학의 양상과 동화문학의 미래』, 동화와번역연구소, 2015 추계학술대회자료집.

장정희, 「소파방정환(小波方定煥) 번역동화의 창작동화로의 이행 연구」, 『동화와 번역』21, 2011, 343-363쪽.

장정희, 「방정환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1-217쪽.

3. 인터넷 자료

<http://www.culturecontent.com>.

<https://ja.wikipedia.org>.

Bang Jeong-hwan form and meaning of the 'fairy tale ghost' research

Kim, Kyung-hee

The paper says the interest in oral story with this Bang Jeong-hwan, he would like to explore what we want to convey the message to children through the left by three contemporary ghost convenience fairy tale. Bang Jeong-hwan has published a translation of donghwajip July 1922 Gift of love and participate in Child magazine in saekdonghoe activities and activists boy while storytelling is a well-known person landscape. Meantime, research on Bang Jeong-hwan is not without its part by organizing his work focuses on nuclear verification of the translation work.

In this paper, Bang Jeong-hwan understand the demons content fairytale three-friendliness configured based on the oral stories and looked at what they preach story newly constructed specifically.

As a result, in January 1921, 'Those who ate a ghost' this is the first time introduced the Seongchil away to eat the fish directly to the villagers confused demons believe he has changed the fish was relieve anxiety about the ghosts. October 1924 'Ghosts of Seongchil catch - the sequel to the ghost ate people' Seongchil is based on the experience showed in the first part in a demanding wealth of the rich and daughters solve the problem caught the servant Seongchil is a fake ghost reign and that it became the son-in-law's house. In August 1925, 'Candle ghost' who gave the villagers to buy a candle held in Seoul, the village people do not know the use case went to the teacher with the most literate in the neighborhood. Also the teacher did not know how to use them to eat were boiled to recognize that the candles a whitebait. Once people know that the people of the village went to Seoul ate boiled candle, it was known as the candle turn on the lights, not the whitebait. Let the villagers trying to chase the stranger regarded as a cigarette falls in the water all the concerns that ignite in his bat watched because it is a joke of the goblin village people are talking head puts the water depth more surprised. 'Candle ghosts', it is this figure which could harm arbitration confusion,

as 'People who eat the ghosts' absence.

Bang Jeong-hwan is a wise person like this and seongchil solve the problem, a person such as a teacher of geulbang confusing ghost appeared in the fairy tale by emphasizing that it is to possess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ontemporary children.

keywords: Bang Jeong-hwan, people who eat the ghosts, demons candles, wisdom, courage

접수일자: 2015. 9. 30.

심사기간: 2015. 10. 1.~2015. 11. 10.

게재결정: 2015. 11. 10.

